

# 日本語 教育의 현재와 미래

李 鳳 姬

(檀國大 日語日文學科)

## 1. 머리말

1965년 韓·日 國交正常化가 이루어지자 '73년에는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로서 日本語가 등장하게 되었고, 大學에서는 雨後竹筍처럼 日本語 관련 學科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그에 대비하여 가르칠 사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國語로 배운 세대가 간단한 절차만 거쳐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어 교육은 外國語 教育이 아닌 國語教育과 같은 방법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 첫 걸음에서부터 잘못이 있었으며, 그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 日本語 교육의 現在인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現在 속에서 바람직한 未來를 생각해 보코자 하는 것이다.

## 2. 日本語 교육의 沿革

우리나라와 日本과의 관계가 언제부터였느냐에 관하여는 확실하지 않지만, 日本의 고대 국가 형성에서 한반도와의 관계나 「三國史記」에 '倭典'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할 수 있다. 물론 '倭典'에서 日本語 교육도 이루어졌느냐는 전혀

알 길이 없으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日本語 교육을 크게 3기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제1기는 1910년 韓·日 合併 이전까지, 제2기는 1945년의 해방까지, 그 이후를 제3기로 본다.

### 1) 제1기

「通文館志」에 의하면, 高麗 忠烈王 2년(1276)에 通文館에는 漢語 학습을 위한 기관이 있었고 恭讓王 3년(1391)에는 蒙·倭·女眞學을 증설하여 四學이 되었다고 한다. 通文館이 語學교육 기관임을 생각할 때, 그 곳에서 日本語 교육도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朝鮮朝에 와서 「經國大典」 司譯院條에 의하면 경상도의 釜山浦와 齊浦에 倭學訓導가 1명씩 있어 日本과의 통상업무와 아울러 日本語 교육도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司譯院에서 하는 일은 교육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고, 인접국가와의 交隣을 위한 번역이나 통역 업무였다.

1894년 甲午更張 이후 司譯院은 폐지되고 英·獨·佛·中國語를 교습하는 外國語學校와 더불어 官立 日本語學校가 세워졌다. 官立 日本語學校의 학생 수는 1903년까지는 20명 미만이었으나, 1904년부터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1894년 우리 정부의 小學校令에서는 고등과에서만 日本語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1906년 通監府가 설치되면서부터는 사범학교, 고등여학교, 농·공업학교 등의 관립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부과되었다.

### 2) 제 2기

韓·日 合併의 이듬해인 1911년 8월 日本 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朝鮮教育令’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國語は國民精神の宿るところにして(中略) 何かの教科目についても國語の使用を正確にし, その應用を自在ならしむることを…….

(국어에는 국민정신이 깃드는 것이니까 어느 과목에서나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유자재로 국어를 응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國語란 물론 日本語를 말한다. 이렇게 하여 日本語는 우리에게 국어라 불리우게 되었고, 이 방침은 해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철저히 실행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3) 제 3기

이러한 정치적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日本語를 안다는 것은 굴욕과 아픔의 상징처럼 되고 말았다. 따라서 日本語를 외국어로서 다시 수용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해방후 16년째 되는 1961년에 최초로 韓國外國語大學에 日本語科가 개설되었고, '62년에는 國際大學에 日本語日文學科가 개설되었다. '65년에 韓·日國交가 정상화되면서 '73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제 2외국어로서 日本語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각 大學에서는 앞을 다투듯이 日語(日文學)科가 설치되었다. '91년 현재 專門大學을 포함한 正規大學 가운데 총 61개 대학에 68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大學院 과정도 20개 대학 28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日本語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만도 9,516명(學部 9,222명 및 大學院 294명)에 이른다.<sup>1)</sup>

## 3. 日本語 교육의 現在

앞에서 우리나라의 日本語 교육을 3기로 나누어 개관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제 3기에 해당하는 해방 이후의 日本語 교육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황 파악에 있어서는 지역별·설립별 등을 고려하여 전체 대학 중 14개교를 선정하고<sup>2)</sup>, 이들 학과의 설립목적, 학과명칭, 교과과정, 전임교수 및 그 전공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學科 設立目的과 名稱

비단 日語科만이 아니라 한 學科가 설립되는 데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그 취지를 반영하여 이름을 짓게 마련이다. 따라서 학과명칭만으로도 교과과정이나 학습내용을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과 설립의 목적에 앞서 그 명칭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 14개 대학에 설치된 학과의 명칭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과의 명칭

학과명	일어일본 학과	일어교육과	일본어과	일어일본 학과
학교수	9*	2	2	1

\* 주: 이중 6개 대학은 '일어교육과'에서 변경된 것임.

전체 14개 대학 중 '日語日文學科'라는 명칭을 가진 학과가 총 9개교로서 가장 많으나, 이 중에는 '日語教育科'로 시작하였다가 '日語日文學科'로 개칭한 곳이 과반수이며, 현재 '日語教育科'라는 명칭으로 남아있는 學科와 합하여 보면 대다수의 대학이 일어교육과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學科 밖의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에 관한 언급은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어교육과'에서 '일어일본학과'로 포장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물인 敎科課程 또한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료와 지면 등의 사정으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1) 日本文化院의 資料, 1991.

2) 모두 4년제 대학이며, 본고에서는 대학 이름을 밝히지 않고 1, 2...으로 표시한다.

또한 학과 설립의 목적을 보면, 日本語・日文學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 곳은 두 대학에 불과하고, 그밖의 대학은 日本文化・日本文學의 정수를 탐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日本의 歷史・經濟에 대한 학문적 연구, 韓・日 文化交流에 이바지할 専門人의 양성, 克口의 주역 양성 등 전반적으로 원대한 목적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國語・英語 과목과는 달리 학생들의 대부분이 大學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日本語를 시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목적하는 바가 너무 거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목적하는 바가 거창하고 원대해서 나쁠 것도 없지만, 자칫하면 목적을 향하여 뒤러다가 발바닥이 땅에 놓여 있지 못하는 똥을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2) 開設科目과 學點配定

먼저 각 대학의 教養科目 및 專攻科目의 학점 배정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총 이수학점은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140 학점이고, 대부분 전공·교양·기타 과목으로 구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140 학점 중 전공과목

<표 2>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학점배정 비교

학교명	총이수학점	교양과목	전공과목	기타과목
ㄱ	140	42	63	35
ㄴ	"	44	66	30
ㄷ	"	42	66	32
ㄹ	"	42	75	33
ㅁ	"	42	51	47
ㅂ	"	60	51	29
ㅅ	"	35	54	51
ㅇ	"	70	70	0
ㅈ	"	42	60	38
ㅊ	"	44	57	39
ㅋ	"	36	60	44
ㅌ	"	42	63	35
ㅍ	"	42	42	56
ㅎ	"	60	80	0
평균 (%)	140 (100)	45.9 (33)	61.2 (43)	33.5 (24)

이 61.2 학점, 교양과목이 45.9 학점, 기타 과목에 33.5 학점을 배정하고 있으나, 배정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기타 과목이 전혀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타 과목이 교양이나 전공 과목보다도 학점 비중이 큰 곳도 있다. 따라서 교양이나 기타 과목이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한지라도 실제로 학생들이 전공과목에 주력할 수 있는 학점은 평균 60 학점 정도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제 절대로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는 專攻科目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전공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표 3> 참조).

여기에서 필수과목의 종류는 총 22종에 이르는데, '日講讀'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가 가장 많고 會話・會話實習・口語文法 등이 10개 대학을 넘고 있다. 그러나 講讀이나 會話,

<표 3> 전공필수 과목

과 목 명	학 교 수
日 講 讀	23
日 會 話	12
日 會 話 實 習	11
日 口 語 文 法	11
日 文 學 史	9
日 語 學 概 論	8
日 作 文	8
日 文 學 演 習	4
日 文 學 概 論	4
日 語 學 演 習	4
日 基 礎 表 現	3
日 本 史	3
日 古 典 文 法	2
日 小 說 講 讀	2
日 文 學 講 讀	2
日 文 化 史	2
日 比 較 文 學	1
日 本 事 情	1
日 文 學 研 究	1
日 社 會 論	1
日 政 治 論	1
日 思 想	1
계	114

3) 대체적으로 학점 수와 시간 수가 같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시간 수만 늘릴 수도 있다.

言語實習 등은 적어도 1~2 학년, 학교에 따라서는 3~4 학년까지도 개설되는 과목임을 감안한다면, 대개 한 학기, 많아도 두 학기 이상은 개설하지 않는 口語文法을 11 개 대학에서 전공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율로 보아 口語文法<sup>4)</sup>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이 文學史, 作文·語學概論 등이 동수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이하는 외국어전공에서 왜 필수로 정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 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공필수를 정하는 데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하나는 외국어교육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필수과목으로 한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교수들의 전공을 참작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보니

수강 학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필수로 묶어 놓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기준인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대다수의 학생은 日本을 잘 아는 교양인이 되기 위하여 日本語를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大學에 와서 처음으로 日本語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왜 이토록 다양한 필수과목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전공필수 과목의 내역을 세분하여 학년별·학기별로 정리하여 그 분포를 살펴 본 것이 <표 4>이다. 이 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전공필수 과목은 2학년 1~2 학기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전체의 48.2%로서 거의 절반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표 4> 전공필수 과목의 학년별·학기별 분포

학과목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계(%)
	1	2	1	2	1	2	1	2	
日 講 讀	4	4	7	6	1	1			23 (20)
日 會 話	1	1	4	4	1	1			12 (10)
日 言 語 實 習	3	1	4	2	1				11 (9.6)
日 口 語 文 法	1	2	4	3	1				11 (9.6)
日 文 學 史				1	2	6			9 (7.8)
日 語 學 概 論				3	3	2			8 (7.0)
日 作 文			4	4					8 (7.0)
日 文 學 演 習	1				1	1	1		4 (3.5)
日 文 學 概 論				2	1	1			4 (3.5)
日 語 學 演 習	1	1				1	1		4 (3.5)
日 基 礎 表 現	1	1	1						3 (2.6)
日 本 史				1	2				3 (2.6)
日 古 典 文 法					2				2 (1.7)
日 小 說				1		1			2 (1.7)
日 文 學 講 讀				1			1		2 (1.7)
日 文 化 史			1	1					2 (1.7)
比較日本文學		1							1 (0.8)
日 本 事 情			1						1 (0.8)
日 文 化 講 義						1			1 (0.8)
日 社 會 論					1				1 (0.8)
日 政 治 論						1			1 (0.8)
日 思 想 論							1		1 (0.8)
계 (%)	12 (10.5)	11 (9.6)	26 (22.8)	29 (25.4)	16 (14.0)	16 (14.0)	4 (3.5)	0 (0)	114 (100)

4) 文法은 한 言語의 골격에 해당되지만, 日本의 소위 國文法은 科學的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골격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 해 동안 기초를 익힌 학생들의 전공을 정착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혀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단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여지는 과목들이 전공필수로 배정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외국어학습의 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는 과목들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두번째로 많은 것은 3학년으로서 1·2학기 각각 14.0%로 2학년에 비하면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이지만,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과목보다는 概

論, 文學史, 日本史, 古典文法 등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수준이 上級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日本語를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복학생들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古典文法과 같은 과목을 전공필수로 묶어서 졸업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1학년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초과목을 필수로 정하고 있으나, 개중에는 ‘文(語)學演習’이니 심지어는 ‘比較日文學’이라는 것도 있다. 演習이라는 데도 문제는 많지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표 5〉 전공선택 일람표

과목명	학년								계(%)	과목명	학년								계(%)			
	1		2		3		4				1		2		3		4					
	1	2	1	2	1	2	1	2			1	2	1	2	1	2						
語	日會話		4	7	6	5	3	1	26(12.3)	文 學	日文學演習					1	1	2	0.9			
	日作文	1	1	3	4	6	3	1	19(9.0)		日文學批評						1	1	2	0.9		
	日古典文法				2	1	2	1	6(2.8)		日小説演習				1		1		2	0.9		
	日文法論					1	3	2	6(2.8)		日作家論						1		1	0.5		
	日語學演習			1			3	1	1		6(2.8)	日作品論						1	1	0.5		
	日語學史						3	2	5(2.4)		日文藝思潮史						1	1	0.5			
	日言語實習		3	2					5(2.4)		계			6	4	15	13	15	23	76(36)		
	日音韻論					1	1		2		4(1.9)	其 他	文體와表現	1	1						2	0.9
	日音聲學					2	1		3(1.4)		日本語教授法								1		1	0.5
	日國語文法		1	1					2(0.9)		藝道文學演習								1	1	0.5	
	日語學特講							1	1		2(0.9)		日本經濟				1	2	1	1	5	2.4
	日講讀		2						2(0.9)		日時事			2	1	2			1	1	5	2.4
	日語學概論		1		1				2(0.9)		日事情			2	1				1	1	5	2.4
	日語彙論						1		1(0.5)		韓·日關係史						1			3	4	1.9
	日意味論							1	1(0.5)		日本史					3		1			4	1.9
日文法特殊研究					1			1(0.5)	日本文化論				1	1	1			1	4	1.9		
계	1	1	14	17	19	22	12	5	91(43.1)	韓·日比較論								2	2	0.9		
文	日古典文學				1	1	5	5	12(5.7)	日本思想史					1			1		2	0.9	
	日詩			1	1	1	3	2	1	9(4.3)	日本學特講							1	1	2	0.9	
	日漢文演習		1	1		2	1	2	7(3.3)	日本論	1									1	0.5	
	日小説講讀		2	1	1		1	2	7(3.3)	日貿易論						1					1	0.5
	日文學特講					3	1	2	6(2.8)	日近代化論					1						1	0.5
	日文學史			1	4	1			6(2.8)	日地理				1						1	0.5	
	日戯曲		1		3			1	5(2.4)	日民俗學						1				1	0.5	
	日隨筆				2			3	5(2.4)	韓·日通譯						1				1	0.5	
	日散文學						1	2	3(1.4)	계	1	2	4	6	8	7	5	11	44(20.9)			
	日文學概論		1		1			1	1	2(0.9)	누계	2	3	24	27	42	42	32	39	211(100)		
日韻文文學 日文學特殊研究					1	1			2(0.9)													

학생들에게 文學 수업이 어떻게 가능한가?

4학년에서는 1학기에만 4과목이 들어 있다. 이때 학생들은 이미 취업준비를 시작했을 때이나, 대부분의 경우 전공인 日本語만으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政治論이나 語(文)學演習 과목 등을 필수로 묶어 놓는 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전공선택으로 개설된 과목을 학년별·학기별로 정리한 것이 앞의 <표 5>이다.<sup>5)</sup>

<표 5>에서 보던 잔 남득이 되지 않는 몇몇 과목들이 있는데, 우선 文學 부문의 '日詩'가 그것이다. 즉, 1학년 때 시작한 日本語인데 2학년에 가서 日本詩에 관한 수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2학년에서 文學 수업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당연하다. 그러나 백보 양보한다고 하자. 2학년의 '漢文演習'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한글세대인 우리 학생들은 日本에서 현재 쓰고 있는 常用漢字를 익히는 일만 해도 쉽지가 않다. 그런데 日本의 漢文은 고전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읽을 수도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인가? 또한 其他 부문의 '文體와 表現' 과목이 1학년에 개설되어 있는데, 강의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짐작도 할 수가 없다. 그외에도 언급하여야 할 것들은 너무 많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sup>6)</sup> 그러나 본 조사대상 중에서만도 현재 日語教育科로 남아 있는 학과가 2개 대학이나 있고 그외에도 졸업생 중에는 教師가 되어 나가는 학생이 상당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日語教授法'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1개 대학 밖에 없다.

#### 4. 日本語 교육의 未來

우리나라 日本語 교육에 관한 바람직한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현행 日本語 교육에 대하여 現場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분류 I의 教授문제로서 첫째는 전임교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전임교수들 간에 전공과목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대학 전임교수들이 담당하는 전공

<표 6>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점

구분	내 용	반응수
I	· 교수 부족	6
	· 전공과목의 교수간 불균형	2
II	· 전공과목 심화의 어려움	5
	· 필수와 선택과목의 선정기준이 모호함	2
	· 선택과목의 과다	1
	· 강좌 수의 부족	1
	· 일본학에 관련된 것이 부족함	1
	· 과목명과 학습내용의 불일치	1
III	· 기초과목을 위한 시간 부족	2
	· 학점 수의 부족	1
	· 기초과목 수강인원 수의 대폭 축소	1
IV	· 학생들은 학문적 심화보다 실용적인 과목을 선호함	1

<표 7> 전임교수 담당 전공과목 수

대학	전 공 별			일본인교수수
	어 학	문 학	기 타	
1	1	4	0	0
2	3	2	0	1
3	2	1	0	1
4	1	2	0	1
5	0	3	0	1
6	0	1	1	1
7	1	2	0	0
8	5	3	1	4
9	2	3	0	0
10	1	0	2	1
11	2	3	2	0
12	1	2	0	0
13	1	3	0	0
14	1	3	0	0
계	21	32	6	10

(5) 전공필수와 중복되는 과목들도 있다.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예정인 「일이일문 관계학과 교과과정 개발연구」 참조.

과목들을 정리한 것이 앞의 <표 7>이다. 專任教授 현황은 文學 전공이 압도적으로 많은 32 명이고, 語學 21 명, 其他 6 명이며 日本人 교수는 10 명이다. 14 개교 중 語學 전공 교수가 전혀 없는 대학이 2, 文學 전공자가 없는 대학이 1, 日本人 교수가 전혀 없는 대학이 7 개교이다. 외국어 교육은 現代 言語學을 전공한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적어도 기초는 語學 전공 교수가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文學이나 기타 과목은 기초가 다져진 이후라야 한다는 것은 외국어 교육만이 아니라 모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취급하지 않지만 教養 日本語에서도 사정은 같다. 그런데 막상 文學 전공자보다 語學 전공자가 웃도는 대학은 2 개교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초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는 교수들의 안일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어렵고 근사한(?) 과목은 많이 이수했지만, 졸업이 임박하고 취업을 할 때가 되면 전혀 자신이 없어 다시 학원 등을 찾게 되는 것이다.<sup>7)</sup>

분류 II의 교과과정 문제를 보면, 전공과목을 깊이있게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전공과목에는 日本語學·文學·教授法·日本語의 네 가지<sup>8)</sup>를 들 수 있다. 현행 140 학점 중 60~70%가 전공학점으로서 그 안에서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專攻을 어디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科目名과 學習內容이 다르다”는 지적은 곧 과목 명칭만 다양하지 교수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앞의 교과과정에서 그 다양한 개설 과목들의 본질을 말하여 주고 있는 듯하다.

분류 III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건의사항이다. 基礎科目을 다지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참고로 필자가 봉직하는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 1 학년에서 言語實習과 會話를 2 학점에 4 시간, 2 학년

에서는 2 학점에 6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학점 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140 학점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문계열 이외의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지적된 것이고, 현재 개정한 대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초과목 수강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교수들은 15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학과 외의 여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가기 위하여 衆智를 모아야 하는 것도 어쩌면 교수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日本語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집약하여 논의하기로 하겠다.

첫째는 外國語 교육과 國語 교육의 문제이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61년에 韓國外國語大學에 日語科가 최초로 설립되고 '73년 고등학교에서 제 2의국어로서 日本語를 선택할 수 있게 된 후 우후죽순으로 대학에 日本語科가 개설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르칠 사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45년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간단한 과정만 거쳐 日本語 教師로 등장시켰다. 물론 이들은 日本語를 國語로 익힌 세대였을 뿐 특별히 言語學的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日本語 교육은 國語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에게 日本語는 엄연한 外國語인 것이다. 國語 교육과 外國語 교육이 어떻게 다른가? 즉, 國語 교육은 言語 습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知的 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外國語 교육은 국민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 즉 말 연습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의 日本語 교육은 이러한 점에서 출발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外國語 교육은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

7) <표 6>의 IV 참조.

8) <표 1> 참조.

9) 李鳳姬, “日本語教育에 관한 一考察(2)”, 『日本學報』, 제15집(1985) 참조.

는가? 학습 대상이 어린이가 아닌 대학생일지라도 그 원리가 다를 수는 없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言語學의 연구 성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즉, 학습자가 가진 言語體系와 학습할 언어의 言語體系를 대조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발음, 구문, 어휘 등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外國語 교육은 應用言語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語學과 外國語 교육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語學 연구의 성과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어학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다. 따라서 外國語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에게는 教授이든 教師이든 그리고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言語學의 조예가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효과적인 4기능(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의 정착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日語學이 되었든 日文學이 되었든 또는 그밖의 다른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이는 그 이후의 일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때가 國語 교육의 시발점과 일치한다고나 할까. 日本語를 國語로 배웠던 세대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나 말—語感을 포함하여—에 있어서는 거의 부족함이 없었다.

둘째는 專任教授와 專攻科目의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첫번째 문제와 함께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르겠다. 즉, 國語 교육과 外國語 교육과의 차이를 엄격하게 인식하였다면, 학교든 학과든 간에 앞의 <표 7>과 같은 전공분포

로 專任教授를 갖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기능의 정착이 있을 후에만, ‘—學’이나 ‘—論’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專攻에 관계없이 現代言語學의 연구성과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예가 있어야 이 땅의 日本語 교육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 5. 맺는 말

우리나라의 日本語 교육은 아직도 걸음마 상태에 있다. 더욱이 그 첫발이 잘못 내딛어져 있다. 물론 그 잘못은 日本語를 國語로 배운 세대에 있다. 즉, 그 세대는 말만 할 줄 알 뿐 學問的인 기반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세대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日本語 교육이 應用言語學的인 方法論을 정립시켜 놓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말조차도 할 줄 모르는 교수들에 의해서 日本語 교육이 이끌려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출발이었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수들이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은 가장 가까운 外國이기 때문에 말해야 할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日本語는 생략 속에 많은 함축을 가진 언어이다. 言外言을 읽지도 못하면서 석·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깐 얼마든지 日本語를 안다고, 가르칠 수 있다고 안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